



제목	The Great Seljuk Empire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Edinburgh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5. 2. 1.
저자	A. C. S. Peacock
출판도시	Edinburgh
페이지수	320
ISBN 또는 ISSN	978-0748638260

**내용 요약**

『위대한 셀주크 제국』은 셀주크튀르크 제국이 장악한 이슬람 중동의 인구 통계적,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변화 양상들을 설명한 책이다. 저자 피코크에 따르면, 튀르크인의 침입은 십자군을 촉발시켰고, 아나톨리아에서 비잔틴 세력의 붕괴를 초래하였으며, 인종적, 언어적 구성을 변화시켰다. 중동지역에 튀르크어를 하는 민족이 들어온 것은 셀주크가 최초였다. 셀주크튀르크는 유라시아의 스텝 지역에서 온 유목민족이었다. 이들이 오기 전에 아랍과 이란 왕조들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들은 1055년 이슬람 세계의 중심지였던 바그다드를 정복하였고, 이후 카이로에서부터 예멘과 오만의 인도양 해안 지역을 장악하였다. 비잔틴 제국은 7세기 이후 아랍의 공격을 무사히 막아냈지만 셀주크 앞에서는 무너졌다.

오늘날 이슬람 문화를 형성한 것은 셀주크였다. 가령 이슬람교의 상징인 미나레트(minaret)를 중동에 처음 도입한 것은 셀주크였다. 이들이 동부의 이란과 중앙아시아까지 이를 퍼트렸기 때문이다. 종교학교인 마드라사(madrasa)도 셀주크가 중앙아시아에서 유입한 것이었다. 저자의 결론은 셀주크 지배하에 이슬람, 이란, 튀르크 문화가 혼합되어 셀주크만의 독창적인 문화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현대에 계승되었다는 것이다.

책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총 8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1장은 '965~1092년 경 셀주크인의 성장', 2장은 '1092~1194년 위기, 병합, 붕괴', 3장은 '주권, 입법, 칼리프 지위를 위한 경쟁', 4장은 '궁정과 궁정 생활', 5장은 '관료와 행정', 6장은 '셀주크의 군대', 7장은 '종교와 셀주크 제국', 8장은 '셀주크 지역의 경제와 사회 조직'을 설명하였다.